

(3) 기본연구과제명 : 한국경제발전경험의 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박복영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의 경제적 위상 향상에 따라 개도국 개발원조(ODA)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개발경험 전수는 우리 ODA의 핵심적 내용이 될 전망
- 많은 개도국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자신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어, 발전경험 전수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 아프리카 개발에 주는 시사점(경험 공유의 콘텐츠)을 정리하고 그것을 아프리카에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방안(경험 공유의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
- 아프리카의 빈곤과 개발 문제는 글로벌 이슈(global issue)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연구 및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빈약하고 불명확
- 2006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를 계기로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조
-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확대계획을 밝혔지만 원조의 내용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가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 중임.
-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협력확대 경쟁이 벌어지는 양상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상황

- 미국: 부시정부의 아프리카중시 정책(에너지부문에서 탈중동 향아프리카)
- 중국: 대규모 중국-아프리카 포럼 개최 (자국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Beijing consensus' 개발 중)
- 일본: TICAD를 통한 아프리카 원조 확대 (동아시아 발전경험 공유가 중요한 컨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NICs 경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논문 및 책은 많으나 그 경험의 개도국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 특히 아프리카 빈곤문제에 대한 국내연구 자체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한국 발전경험과 아프리카 개발을 연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
- 한국 성장시기의 국제적 환경 변화의 내용과 변화된 환경 하에서의 한국경험의 복제가능성(replicability)에 대한 연구 필요
- 한국의 고유한 특수성(냉전 하에서의 show-window 등) 요인을 추출하고, 이런 특수성이 없는 경우에도 경험의 복제가 가능한지를 연구
- 한국의 특수성과 현재 개도국의 대내적 특성(AIDS, governance, 교육 등)을 상호비교하고 경제정책적 의미를 분석

□ 순수한 경제적 접근보다는 국제경제환경, 국제정치환경, 국내정치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채택

- 물가안정, 재정건전화, 무역자유화, 외국인투자유치와 같은 Washington Consensus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

치체제의 형성까지도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험의 시사점 도출

- 한국경험의 공유(전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어 있지만, 이의 효과적 전수체계는 물론이고 그 방안에 대한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
 - KDI 국제대학원, 전직관료, KOICA 공무원연수 등을 통한 전수가 진행되지만 체계성 및 내용일관성 결여, 전수 콘텐츠 부족, 장기전략 부재의 문제점
 - 현재의 체계를 종합적 정리, 해외사례연구, 전문가 토의 등을 통해 사업체계화, 콘텐츠 개발, 장기전략수립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Asia's next giant Amsden (1989) 한국경제성장 요인 분석	문헌 연구	한국성장 요인 분석
	2	-World Economic Report World Bank(1994)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공요인	문헌 연구 통계 분석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성장 요인 비교연구와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제공
	3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장하준 외(2004) 한국경제 성장의 교훈과 반성	자료 분석	한국 고도성장의 재평가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문제점
본 연구		한국의 발전경험과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문헌 연구 자료 분석, 전문가인터뷰	한국발전경험을 아프리카 개발에 주는 시사점 혹은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 한국경제발전 당시의 국제적 환경과 아프리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 경험의 콘텐츠를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발전경험 공유를 우리의 대아프리카 원조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 기존문헌 분석

□ 연구진 토론 (연구진 간의 활발한 토론에 기초한 연구진행, 월 1회)

- 발전경험 연구의 경우 원외의 한국경제 연구자(정치경제학적 접근)를 폭넓게 활용
- 전수방안 연구의 경우 원내 연구진 활용
- 자문단 구성 (전직관료, 학자 등으로 구성, 분기별 1회)
- 국제세미나를 통해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아프리카 전문가의 의견수렴
- 해외사례연구

■ 주요 연구내용

- 한국발전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존연구
 - 국제환경변화와 복제가능성
 - 현재 개발도상국의 특수성과 복제가능성
- 정책분야별 적용가능성과 한계
 - 산업정책의 역할과 적용가능성
 - 무역정책의 역할과 적용가능성
 - 인력개발정책과 적용가능성
 - 자본조달정책과 적용가능성
 - 정책 집행체계(정책조정)와 적용가능성
- 아프리카의 개발과 기존 경험의 적용가능성
 - 아프리카 경제현황과 빈곤의 원인
 - 아프리카 빈곤문제의 특수성과 보편성
 - 기존 발전경험의 아프리카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Washington con

sensus, 중국모형, 동아시아 모형, 한국모형 등 비교시도)

한국발전경험의 아프리카 개발에의 적용가능성

- 아프리카의 특수성과 한국발전경험의 적용가능성
- 발전모형의 적용인가? 개별 정책의 적용인가?
- 대아프리카 원조의 방향과 한국발전경험의 공유 방안
-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사점

기대효과

- 한국발전경험의 개도국에의 적용가능성을 일반화하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체계화하는데 기여
- 아프리카 빈곤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의의
- 대아프리카 원조정책의 방향 제시와 내실화에 기여
-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대한 발전경험공유 사업에 공유의 콘텐츠 제공

협동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아프리카 현지 전문가 등 10여 명 예정 - KDI 연구진이 공동연구진으로서 참여할 계획

연구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12월 (12개월)